



벚나무 빗자루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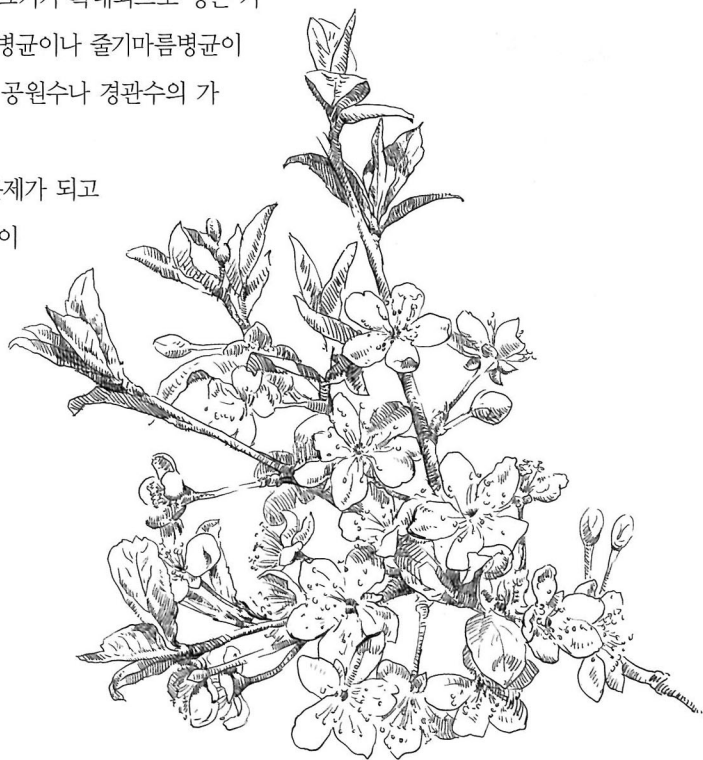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나무로 화사한 꽃을 피우는 벚나무를 꼽을 수 있다. 또한 벚나무는 우리나라의 가로수로 가장 많이 심어진 나무이며, 정원수로도 많이 애용되고 있는 나무이다.

그러나 벚나무에는 화사하게 꽃을 피우지 못하는 병이 있는데 바로 빗자루병이다. 빗자루병은 꽃눈이 잎으로 변화는 엽화현상(葉化현상, Phyllody) 때문에 꽃이 피지 않고, 잎이 계속 분화하여 작은 가지가 만들어져 빗자루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병이다. 봄철 다들 화려하게 꽃단장하고 있는데 꽃이 피지 않는 가지가 있으면 벚나무가 빗자루병에 걸렸다는 증표이다. 이 병은 어린 나무부터 큰 나무까지 수령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병든 가지는 매년 빗자루 증상을 나타내면서 크기가 확대되므로 병든 가지는 결국 말라죽게 되고, 죽은 가지로부터 부후병균이나 줄기마름병균이 침입하게 된다. 병든 가지는 꽃이 피지 않으므로 공원수나 경관수의 가치를 크게 떨어트리게 된다.

최근 제주도·진해·부산지역 등 전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도 가로수로 벚나무류가 많이 식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병은 곰팡이에 의하여 발생하는데 파이토플라스마, 마이코플라스마 혹은 바이러스 등으로 잘못 알려져 항생제로 나무주사를 할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병원의 종류에 따라 처방이 달라지는데, 벚나무 빗자루병은 곰팡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병이므로 이에 준한 방제, 관리가 필요하다.



김경희 박사/연구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병해충연구과



1. 병원균

Taphrina wiesneri (곰팡이)에 의하여 발생하고, 병원균의 포자는 이른 봄 병든 가지에서 나온 작은 잎의 뒷면에 흰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포자 덩어리들이다. 이 포자들이 바람에 날려 다른 가지나 나무에 전염이 된다.

2. 증상

가는 가지가 다수 나와 빗자루증상을 나타내며 병든 나무를 방치하면 병환부가 번져 나무전체에 잔가지가 총생하면서 꽃이 피지 않게 된다. 병원균의 포자가 형성된 잎은 흑갈색으로 변하고 얼마 후 말라서 낙엽이 된다. 병든 가지에서 나온 잎은 기공이 충분히 열리지 않으므로 증산이나 광합성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세쇠약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처음에는 가지의 일부분이 흑 모양으로 부풀어 커지고 이곳에서 잔가지가 빗자루모양으로 총생한다. 잔가지는 보통 위로 뻗지만 때로는 옆으로 뻗는 가지도 있다. 병든 가지의 수피는 유연하고, 건전가지보다 이른 시기에 작은 잎이 나와 빗자루증상을 나타내며 꽃은 피지 않는다. 여러 종류의 벚나무에 발생하지만 특히 왕벚나무에서 피해가 심하다. 4월 하순이후 병든 부분의 잎은 오글거리고, 잎 뒷면에는 미세한 흰색가루(병원균의 포자)가 많이 형성되며 병든 잎은 흑갈색으로 말라죽는다.

3. 방제방법

- 병든 가지는 겨울철에 아래쪽의 부풀은 부분을 포함하여 잘라내 없애거나 태우고, 잘라낸 부분에는 지오판 도포제를 발라주어 유합을 촉진시켜 부후균의 이차적인 침입을 막도록 한다. 일부 잘라낸 부위에서 다시 병든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2~3년간 계속적으로 관찰하여 병든 가지가 나오는 밑부분을 포함하여 잘라주도록 한다. 병원균은 병든 가지 부위에서만 잠복해 있다가 봄에 잎이 피면 모습을 나타내므로 병든 가지를 잘 잘라주는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다.
- 큰나무는 자르기가 곤란하므로 나무가 어렸을 때부터 관리한다.
- 이른 봄 꽃이 진 후 즉시 테부코나졸 수화제를 2~3회 전체적으로 뿌려준다.
- 시비 등으로 수세회복을 도모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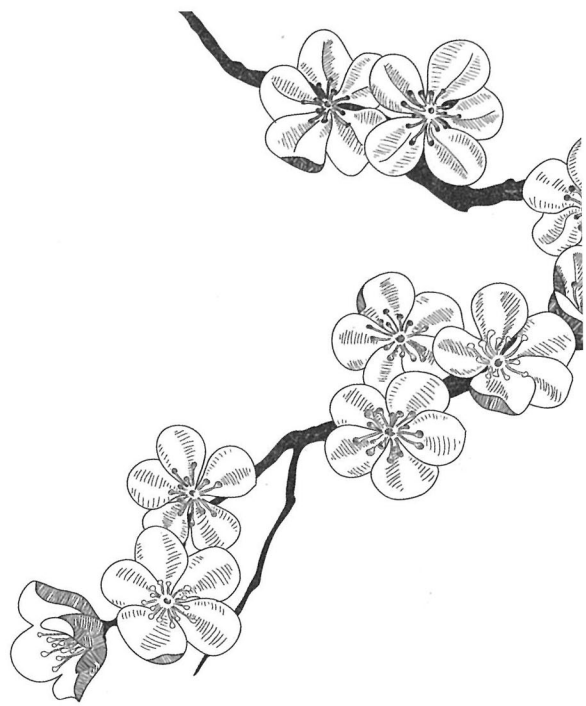
피해(병든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음)



피해 심 전경(나무전체에 꽃이 거의 피지 않았음)



병든 잎은 연록색을 띠고, 약간 두텁다(표면)



병든 잎 뒷면에 나타난 하얀가루는 병원균의 포자덩어리



병든 잎은 포자비산 후 검게 변하며 떨어진다